

기고

생명을 살리는 첫걸음, 응급처치의 중요성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위급한 순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람,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 집에서 갑자기 호흡 곤란을 겪는 가족 등 이러한 긴박한 순간에 누군가의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생명을 살리는 열쇠가 됩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는 지역 중 하나이며, 광범위한 농촌 지역과 섬 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마을 공동체 문화가 강하고, 주민 상호간의 유대감이 깊어 응급 상황에서 이웃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나주시는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로,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과 젊은 세대가 밀집한 빛가람혁신도시가 공존하는 구조입니다. 도심에서는 유동 인구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가, 농촌에서는 고령자 중심의 돌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입니다. 심정지 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이 이뤄질 경우 생존율은 2~3배 이상 증가합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가장 먼저 현장에 있는 사람의 응급처치가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시민이 “나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혹시 잘못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으로 응급처치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시행한 시민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나주소방서는 나주시민을 포함한 전남 도민 모두가 응급처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마을회관, 복지시설,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이 생명의 기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전남은 사람과 사람이 이웃으로서 살아가는 공동체 중심의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서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공동체의 ‘생명지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주소방서는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생명안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나주소방서장 신항식

하이데거의 저서『존재와 시간』은 기존의 철학에 대해 강력한 철학을 가했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사유를 향해 돌파구를 연 그는 현상학의 거장인 후설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의 사상을 완성하였고, 후설의 뒤를 이어 프라이부르크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1933년에는 43세의 나이로 동 대학의 총장에 추대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때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자.

히틀러가 이끄는 국가 사회주의당, 일명 나치(Nazi)의 지지 기반은 기존 정당 및 노조에 불만을 품은 중간층과 실업자였다. 하지만 사회주의 운동에 위협을 느낀 경영자 단체의 도움을 받아 풍부한 자금으로 선전 활동을 시작하면서, 선거를 통한 권력의 쟁취를 꾀하였다. 1932년에 제1당이 되고, 1933년에 재계와 군부의 지지 아래 무려 288석을 얻음으로써 히틀러 정권을 출범시켰다. 바로 이것이 나치 만행의 씨앗이 될 줄이야.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홀로코스트(‘신에게 동물을 태워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의미)일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당이 독일과 점령지 여러 곳에 약 4만여 개의 집단 시설을 세우고, 유대인과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약 1천 1백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학살한 사건을 가리킨다. 사망자 가운데 유대인은 약 6백만여 명으로, 당시 유럽에 살던 9백만 명의 유대인 중 약 2/3에 해당한다. 수감자들은 각종 작업에 동원되어 대부분 과로사하거나 병사(病死)하였다. 동유럽에서는 ‘특별행동 부대’라는 불법 무장단체가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과 정치사범을 총살했다고 알려져 있다.

나치 학살의 잔인성 가운데 하나는 인간을 대상으로 의학 실험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이 중에는 대상자를 고압력 방안에 집어넣는 실험, 얼음방 안에 집어넣는 실험, 약 임상 실험, 아이들의 눈에 염

강성률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버 강성률 철학티비



출세의 달인들-하이데거(2)

색약을 주사하여 눈 색깔을 바꾸는 실험 등이 포함되었고, 이외에도 수많은 잔인한 의과 실험이 있었다. 실험을 통과하여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즉시 죽임을 당한 후, 배가 갈라졌다. 결국 그 여파는 대학에까지 뻗어왔으니, 4월 5일자로 취임한 폰 뮐렌도르프 총장은 반(反) 유대주의 내용이 적힌 플라카드(현수막)를 교내에 걸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교육부에서는 그 즉시 총장을 파면조치하고 만다. 홍보를 받은 뮐렌도르프는 곧바로 대학 동료이자 저명한 철학교수인 하이데거를 찾아가 ‘차기 총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치당의 간부가 총장에 임명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한 하이데거는 4월 21일, 대학 평의회 의장직에 의해 신임 총장에 선출된다. 하이데거는 ‘독일 대학의 자기 주장’이라는 제목의 총장 취임 연설에서, 학생들에게 ‘3대 봉사’, 즉 지식추구 외에 노동과 군사 훈련에도 동참할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다. 곧이어 나치 간부인 프라이부르크 시장과 당원들이 찾아와 입당을 권유하자, ‘당직을 맡지 않고, 당을 위해 활동하지도 않는다.’는 조건으로 입당을 결행한다. 이리하여 1933년 5월 1일,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가운데 한 명이 나치 당원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떻게 형식적으로나마 하이데거가 나치에 협력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렇다면, 과연 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아내가 히틀러의 저서『나의 투쟁』을 읽도록 권유한 것이 틀림없을까? 물론 그런 설이 있긴 하다. 그렇다고 하여 하이데거가 곧 나치인 것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나치에 저항한 영웅도 아니었다.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한 하이데거는 4월 21일, 대학 평의회 의장직에 의해 신임 총장에 선출된다. 하이데거는 ‘독일 대학의 자기 주장’이라는 제목의 총장 취임 연설에서, 학생들에게 ‘3대 봉사’, 즉 지식추구 외에 노동과 군사 훈련에도 동참할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다. 곧이어 나치 간부인 프라이부르크 시장과 당원들이 찾아와 입당을 권유하자, ‘당직을 맡지 않고, 당을 위해 활동하지도 않는다.’는 조건으로 입당을 결행한다. 이리하여 1933년 5월 1일,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가운데 한 명이 나치 당원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떻게 형식적으로나마 하이데거가 나치에 협력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렇다면, 과연 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아내가 히틀러의 저서『나의 투쟁』을 읽도록 권유한 것이 틀림없을까? 물론 그런 설이 있긴 하다. 그렇다고 하여 하이데거가 곧 나치인 것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나치에 저항한 영웅도 아니었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지난 6월 27일 오후 1시 26분쯤 여주시 만흥동의 한 식품 가공업체에서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던 직원과 이를 구조하려던 업체 대표가 잇따라 쓰러져 2명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과거에도 2020년 부산에서 맨홀 내부에서 작업 중 3명이 숨졌고,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창고에서는 채 환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점화원에 의해

발화·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4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 결핍으로 질식사 가능성이 있다. 또 유해가스 등이 폭발범위 내에 존재해 성냥이나 화기 등 점화원과 접촉할 경우 폭발할 위험이 있다. 이에 작업 전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재해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산소 결핍·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먼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안전수칙과 사용해야 할 보호구·장비, 사고 시 구조 방법·응급처치 요령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 공장이나 공동주택 등의 맨홀, 정화조 등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땐 화재·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주요 안전수칙에는 ▲작업 전·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중 환기 ▲보호구 착용 ▲작업 중 정리정돈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밀폐 공간에서 구조 작업을 할 땐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구조에 나서야 한다. 보호 장비가 없다면 119에 구조를 요청해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든 사고가 마찬가지지만 안전수칙을 지킬 때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한선근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하자

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음력 6월 27일)

Grid of daily fortune tellings with zodiac icons and text. Includes entries for 48-year-old, 49-year-old, 50-year-old, 51-year-old, 52-year-old, 53-year-old, 54-year-old, 55-year-old, 56-year-old, 57-year-old, 58-year-old, and 47-year-old.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email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Life Line' (대한민국의 생명선)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and logos for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nd 50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Expressway Authority.